

# K유물에 빠진 미 게임사, 조선 '죽책' 152년 만에 귀국시켜

서정민 기자 meantree@joongang.co.kr

“아니 이게 왜 여기에?”

2017년 6월 7일 국외소재문화재단 조사활동2팀의 김동현씨는 인터넷으로 해외 경매에 출품된 한국 문화재 정보를 검토하다 깜짝 놀랐다. 프랑스 한 경매 사이트에 한국 유물로 올라온 사진 때문이다. 제목은 간단했다. ‘여섯 페이지의 필사본, 1759년 결혼 관련 문서’. 사진은 명함 크기보다 작았지만 가지런히 엮은 대나무 위에 글씨를 새기고, 위아래로 황금색 변철을 덧댄 모습이 분명 ‘죽책(竹冊)’이었다.

게임 캐릭터 한복 재현 영상도 화제

“국립고궁박물관이라면 모를까, 경매도록에 실릴 유물이 아니었으니 놀랄 수밖에요. 말 그대로 심장이 뛰었죠.”(김동현 현 기획조정부장-이하 김)

‘LoL’ 개발 라이엇 게임즈의 사회환원

한국 진출하며 문화유산 지원 사업 11년간 6건 환수, 총 76억원 기부

‘효명세자빈 책봉 죽책’ 보물 지정

2017년 파리 고미술 경매서 발견 “007가방에 넣어 호위하며 모셔와”

유물 관리·역사 체험 프로도 진행

문화유산보호 대통령 표창 수상

“게임도 문화, 유저들 관심 가질 것”



라이엇 게임즈가 2012년부터 문화재청과 산하 국외소재문화재단, 문화유산국민신탁 등과 함께 ‘한국 문화유산 보호 및 지원’ 프로젝트를 펼치면서 외국에서 환수해온 우리 문화재들. 1 6월 20일 보물로 지정된 ‘문조비 신정왕후 왕세자빈책봉 죽책’ (2017년). 2 백자이동공명사각호(2019년). 3 중화궁인(도장·2019년). 4 척암선생문집 책판(2019년). 5 보록(어보를 담은 외함·2022년). 6 석가삼존도(2014년). /사진 라이엇 게임즈·국외소재문화재단

조선 왕실은 왕에게 존호·시호·휘호를 올릴 때나 왕비·왕세자·왕세자빈을 책봉할 때 ‘책(冊)’을 제작했다. 대상이 왕·왕비이면 옥(玉), 왕세자·왕세자빈이면 대나무를 썼다. 그리고 이 책들은 주인이 세상을 떠나면 중요도에 봉안됐다. 그러나 죽책은 왕실 밖으로 유출될 수 없는 귀한 물건이다. 민간에서 사사되어 제작할 수도 없던 물건인데 프랑스 고미술 경매 시장에 등장한 것이다.

김씨가 전문가들과 함께 조선왕조실록 등의 기록을 뒤져 밝혀낸 죽책의 정체는 ‘효명세자빈 책봉 죽책’. 1819년 신정왕후가 효명세자(드라마 ‘구르미 그린 달빛’ 속 박보검이 맡았던 역할로, 어질고 총명함이 남달랐지만 부왕의 대리정정을 수행한 지 4년 만에 사망했다)의 세자빈으로 책봉되던 해에 제작된 것으로 1866년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군에 의해 약탈당했거나 불타 소실된 것으로 추정돼 왔다. 2017년 파리에서 발견되고, 경매 낙찰 후 2018년 1월 한국으로 돌아왔으니 152년 만에 귀국이었다.

“워낙에 귀한 유물이니 화물 운송을 할 수 없어 당시 팀장님과 제가 파리로 날아가 007 가방에 넣어 직접 모셔 왔죠. 바닥이나 짐칸에 둘 수도 없어서 팀장님과 저 사이에 따로 좌석 한 자리를 예약하고 양쪽에서 호위했어요. 잠도 교대로 자고, 가방과

손목에 끈도 연결하고, 승무원들의 호기심 가득 찬 질문에도 휴여 잘못될까 답도 못 하고. 정말 숨 막히는 비행이었죠.”(김)

지난 6월 20일 문화재청은 조선왕조 어보 어책 교명, 아미타여래구존도 등과 함께 이 죽책을 보물로 지정하고 명칭도 ‘문조비 신정왕후 왕세자빈책봉 죽책’으로 조정했다. 이날 누구보다 감격스러웠던 사람은 직접 경매 사이트에서 유물을 찾아내고 환수작업까지 책임졌던 김동현씨, 그리고 라이엇 게임즈 사회환원사업부문 구기향 총괄이었다. 게임회사, 그것도 미국에 본사를 둔 외국 회사가 우리 문화재 환수와 보물 지정에 왜 감격할까?

라이엇 게임즈는 매월 전 세계 1억 명 이상이 사용하는 ‘리그 오브 레전드(League of Legends)’, 일명 롤(LoL)을 개발하고 유통하는 글로벌 게임사다. 2011년 라이엇 게임즈 코리아를 설립하고 한국 서비스를 시작하면서부터 곧바로 사회환원사업을 고민했다. 글로벌 게임 안에 한국의 구미호 전설을 기반으로 한 여성 캐릭터 ‘아리’를 넣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였다.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 우리로서 할 수 있는, 직원도 게임 유저도 모두 기뻐하고 보람을 느낄 만한 프로젝트를 찾는 게 제게 떨어진 특명이었어요.”(구기향 총괄-이하 구) 신혼 2개월 차인 구 총괄이

밤낮으로 고민하는 것을 보고 힌트를 준 사람은 미술 관련 일을 하는 남편이었다. “문화재 관련 사업을 하면 국민들이 다 좋아할 것 같다’고 조언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저 역시 ‘게임회사



가 무슨 문화재 사업이냐며 흘려버렸는데, 한국과 미국 본사 직원들이 ‘아리’가 입을 한복에 관해 협의하면서 ‘한복 색깔은 정말 오묘하다’ 말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마침 그때 미디어에선 어느 중학생이 ‘3.1절’을 ‘삼점1절’로 읽는 장면이 화제가 되면서 ‘요즘 젊은이들이 우리 역사와 문화에 관심 없다’는 게 이슈가 됐죠. 게임도 문화인데, 우리가 젊은 친구들과 제일 잘 교감하는 회사인데, 우리가 직접 역사·문화 사업에 나선다면 젊은 유저들이 관심 있게 들어주지 않을까 생각했죠.”(구)

구 총괄은 자신처럼 중고교 시절 역사책을 통으로 외웠지만 결국 아무 것도 기억 못하는 수능세대의 경험도 떠올랐

지난 11년간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 프로젝트를 함께해 온 라이엇 게임즈 구기향 총괄(왼쪽), 국외소재문화재단 김동현 부장.

다고 했다. “사건을 연도로만 외우니까 그게 기억에 남겠어요? 무엇이든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가격 없는 문화재, 경매 타이밍 중요” 라이엇 게임즈는 2012년부터 문화재청과 후원 약정을 맺고 문화재청 산하 국외소재문화재단, 문화유산국민신탁 등과 함께 ‘한국 문화유산 보호 및 지원’ 프로젝트를 펼쳐왔다. ‘석가삼존도(2014년)’ ‘문조비 신정왕후 왕세자빈책봉 죽책(2017년)’ ‘척암선생문집 책판(2019년)’ ‘백자 이동공명사각호(2019년)’ ‘중화궁인(2019년)’ ‘보록(2022년)’ 등 총 6건의 국외소재문화재가 국내로 돌아오는 데 기여했다. 그동안 관련 프로젝트를 위해 라이엇 게임즈가 기부한 지원금은 총 76억7000만원. 문화재청과 민간의 협력 사례 중 최고 금액으로 꼽히는데, 더욱 인상적인 것은 매년 지원금 예산을 수억 원씩 미리 책정해 둔다는 점이다.

“문화재 환수 이슈로 라이엇 게임즈가 언론에 많이 노출되니까 꽤 많은 기업들이 문의를 해 오는데 공통질문이 ‘연내 안에 이슈를 낼 수 있냐’ ‘올해 안에 환수해 올 타겟 리스트가 있냐’였어요. 라이엇 게임즈와 함께한 6건의 환수 프로젝트만 봐도 한 해에 3건이 성공할 때도 있지만, 한 건도 없을 때가 있었어요.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라이엇 게임즈는 매년 꾸준히 큰돈을 후원하면서 목욕하듯 기다려줬죠. 의사결정을 단 며칠 만에 해주는 것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예요.”(김)

국외로 반출된 문화재가 환수되는 데는 통상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기증과 경매를 통한 매입이다. 특히 경매로 문화재를 되찾아올 때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관련 기관들과 여러 협의를 거쳐야 하는 국외가 움직이기 힘든 이유다. 이럴 때 라이엇 게임즈처럼 미리 예산을 책정해 두고, 관련 사업에 이해도 역시 높은 민간 기업은 더 없이 좋은 파트너다.

“문화재에는 소비자권장가격이라는 게 없죠. 경매사가 유물에 대해 잘 모르면 기준가는 낮게 책정되지만, 일단 관심을 갖는 곳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가격이 달라져요. 무엇보다 지금 놓치면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르니 현장에서 애가 타죠. 시장에서 귀한 물건이라고 감지되면 더 숨어버리는 유물도 많거든요.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해요.”(김)

“죽책이 발견된 날부터 환수 계약에 성공하기까지, 2017년 여름은 ‘잠 못 드는 뜨거운 밤’의 연속이었죠. (웃음) 시차가 다른 파리에서 김동현씨가 밤낮 가리지 않고 수시로 전화를 해 왔으니까요.”(구)

라이엇 게임즈는 문화재 환수 지원 외에도 ‘서울 문묘와 성균관 및 전국 4개 서원의 건축 3D 디지털 축락’ ‘조선시대 왕실 유물 보존처리 지원’ ‘4대 고궁 보존 관리 지원’ ‘이상의 집 보수 정비’ 등을 진행했다. 그 결과 2017년 외국계 기업 최초로 문화유산보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또 게임 유저들을 대상으로 한양도성·서촌 걷기를 중심으로 한 ‘티모 문화유산 원정대’ 등 역사교육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침선장·화평장·금박장·매듭장 무형문화재 장인들과 함께 게임 속 ‘아리’의 한복을 실제로 재현하고 그 과정을 기록한 영상은 유튜브에서 100만 뷰를 앞두고 있다.

“젊은 유저들이 ‘라이엇 게임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게 자랑스럽다’ 댓글을 달아주고, 게임은 모르는 어르신들이 ‘문화재 환수 기사에서 봤다’며 응원해 주시면 큰 보람을 느끼죠. 아직 국내로 돌아오지 못한 국외소재문화재가 많은 만큼 더욱 열심히 지원할 겁니다.”(구)

〈광주일보와 중앙 SUNDAY 제휴 기사입니다〉



1982 - 2022

국제보청기 40주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 국제보청기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